

“기본기·수비 중요...우승 시스템 갖추겠다”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신임감독이 17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홈구장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새 감독 맷 윌리엄스 인터뷰

‘호랑이 군단’의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54)감독이 17일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필드에 섰다. ‘기본기’와 ‘수비’를 강조한 그는 ‘최선을 다해 이기는 야구’로 왕조제건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윌리엄스 감독은 바로 광주로 달려와 자신의 새로운 안방인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실내 연습장과 웨이트장을 둘러본 윌리엄스 감독은 ‘뷰티풀’을 연달아 외치면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도 올랐다.

윌리엄스 감독은 빅리그에서 5차례나 올스타에 선정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또 2010년 애리조나 코치를 시작으로 2014~2015년 워싱턴 내셔널스의 감독을 맡는 등 9년간 지도자로서도 풍부한 경험

을 쌓았다.

하지만 그는 빅리그에서 안정적인 지도자 길을 걷는 대신 과감히 한국행을 선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통했다”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KIA는 앞서 2009년, 2017년 통합 우승을 이루고도 강팀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변화의 시대에 직면한 KIA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포지션 전문성 강화 ▲프로 선수로서 의식 함양 ▲팀워크 중시로 구단의 방향성을 잡았다. 조계현 단장과 의 면담 자리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KIA의 비전에 공감하며 도전을 결심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마팅을 하면서 단번에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에서도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같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낮선 타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걱정이 아닌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걱정은 없다”며 단언한 그는 “나는 가르

치는 것을 좋아한다.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다. 함께 커갈 수 있는 기회다. 이곳에서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흥분된다”고 말했다.

이러 “모든 팀 특히 젊은 팀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하다”며 ‘기본기’를 강조한 윌리엄스 감독은 또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수비를 야구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고 ‘수비’를 언급했다.

그는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공격적으로 갈 것이다”면서도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주루 플레이,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탄탄한 기본기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고 다시 한번 ‘기본기’를 강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18일 한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2020시즌을 위한 구상을 시작한다.

그는 “가을은 스프링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선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치들과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며 선수단을 파악하겠다”며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시리즈일 것이다. 모든 이들이 우승을 원하고 나도 그렇다. 우승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내일부터 그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18일 한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2020시즌을 위한 구상을 시작한다.

그는 “가을은 스프링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선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치들과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며 선수단을 파악하겠다”며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시리즈일 것이다. 모든 이들이 우승을 원하고 나도 그렇다. 우승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내일부터 그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낮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이지만 스스럼없는 성격의 그는 ‘새로움’이 즐겁다. 이날 사나나 문화를 처음 경험한 그는 한국 음식에도 만족감을 보였다.

“내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아침 6시 30분에 사나나에 갔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조만간 다시 갈 계획이다”며 웃은 윌리엄스 감독은 “한국의 음식, 문화, 직업의식 등이 좋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매 경기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타이거즈 팬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들었다”며 “팬들이 경기장에 오셔서 즐거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기차 시대에 ‘경형 SUV’ 생산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실에 맞나

한은 광주·전남본부 국감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주력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과,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기반 위축으로 광주·전남 주력 업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은행 차원에서 주력 업종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어렵고, 자영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부조사를 신중하

게 하겠다”며 “채납정리에도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장흥지정장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내 지역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생산, 투자, 수출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SUV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려 친환경 미래차에서 경쟁력 세계 1위를 만드는 미래차 국가 비전선표가 이뤄지고 있는 때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000cc급 경형 SUV 연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당장 수익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으로 시작해 적절한 시기에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아세안 정상회의’ 특별열차 광주 방문

11월 25~26일 부산서 개최 성공개최 기원 부대행사 문화도시 광주 이미지 확산

아시아 각국이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연대와 번영을 모색하는 ‘2019 아시아문화주간’이 17일 개막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1개국 국민 200여명이 광주를 찾았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열차가 서울과 경주, 부산, 순천 등을 거쳐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에서 열린 ‘2019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에 참석해 서로의 우호·협력을 다졌다. 이날 광주 어린이들은 전통의 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한·아세안 특별열차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광주의

정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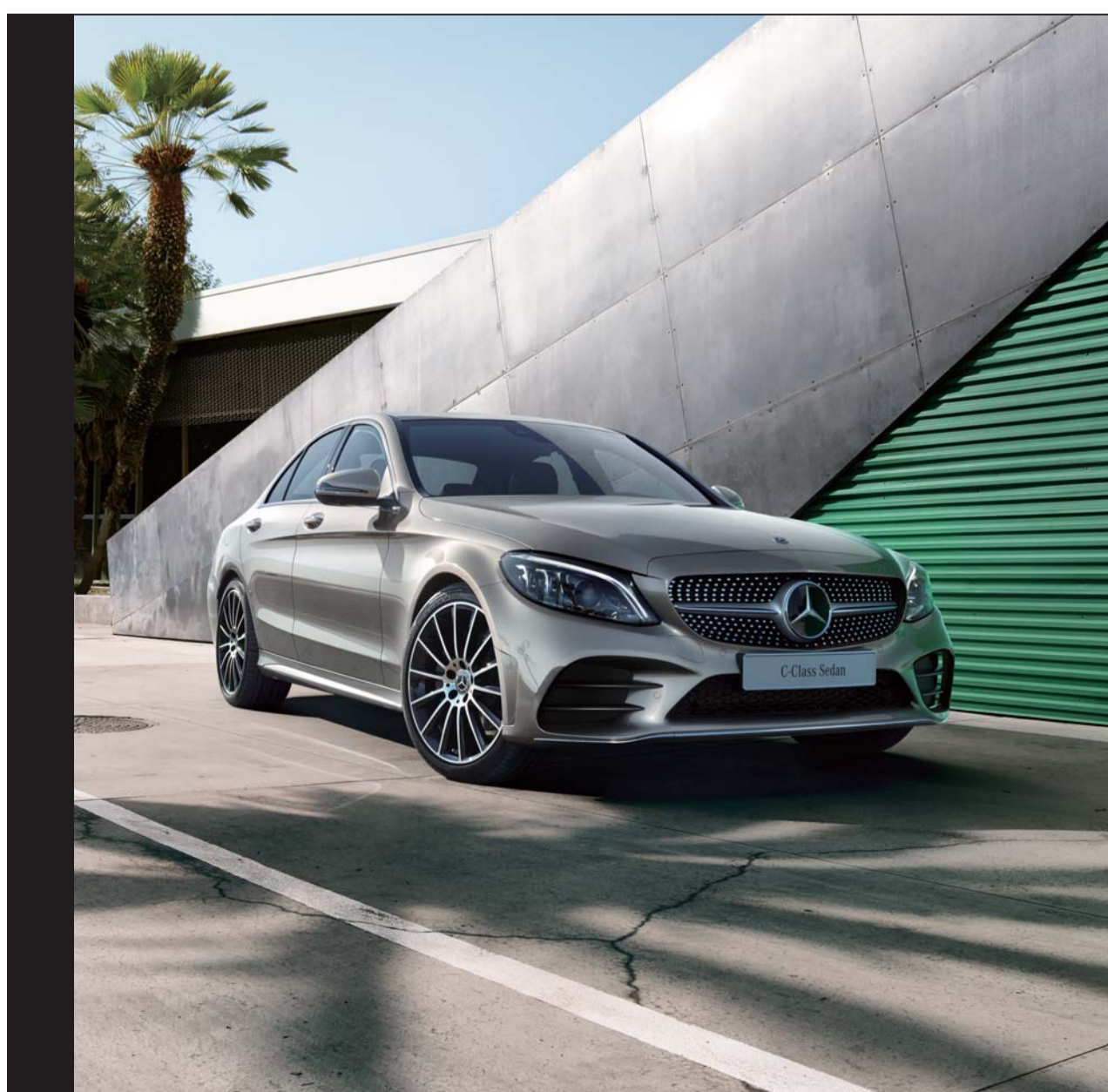
이들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세안의 문화 허브, 빛의 도시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전시를 관람하며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시 관람 후에는 ‘함께하는 문화’를 주제로 네트워킹 리셉션(Reception)이 진행됐다.

한·아세안 주요 인사들은 네트워크 리셉션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 아세안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아세안출신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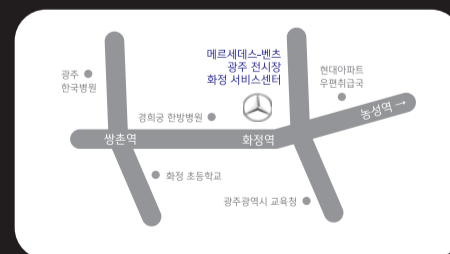
/최연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